

UN 軍에 關한 記事 調査와 分析

—五·一六 前後를 中心으로—

A Survey and Analysis of Newspaper Stories on
United Nations troops in Korea

—The Period of Pre and Post May Military Revolution—

指	導	張	龍
共同	調査	權	韶
		金	泰
		鄭	壽
		彭	元
			順

一. 序

1950年 6月 25日에 韓國動亂이 발발하자 國際聯合에서는 憲章 第7章에 依한 強制措置를 取하였다.

即 6月 25日에 安全保障理事會는 이 事態를 審議하여 北韓武裝軍의 南韓侵攻을 平和破壞行爲로 規定하고 敵對行爲를 即時 中止할 것 과 또 武裝軍을 三八線까지 撤收할 것을 北韓當局에 要請하는 決議를 하였다. 이 決議는 憲章 第39條에 依한 平和破壞行爲의 認定 및 第40條에 依한 暫定的 措置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를 無視하고 軍事行動을 繼續하였다.

이렇게 되자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同年 6月 27日에 다시 大韓民國에게 武力攻撃을 격되하고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必要한 援助를 提供할 것을 國際聯合의 모든 加맹국에게 권고한다는 決議를 採擇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을 爲始한 自由 友邦의 16個國이 이 勸告를 受諾하여 大韓民國에 軍隊를 派遣하였으며 大韓民國을 侵略으로 부터 救出하고자 援助를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韓國에서의 共產侵略을 격퇴하고 統一을 達成하려는 UN의 崇高한 理念下에 派遣된 UN 軍은 國防上은 勿論, 經濟, 文化, 社會 等に 걸쳐 物心 兩面에 援助와 協助를 하여 왔음을 言及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一面 UN 軍이 韓國에 駐屯하므로서 韓國人과에 接觸이 不可避한데 그로 因하여 야기되는 관계와 物상사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韓美間에 行政協定을 둘러싸고 상당한 여론이 바등하였고 현재는 교섭이 進行中에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駐韓 UN 軍에 對하여 한국신문은 어떤태도로서 그 기사를 다루어 왔는지 即 公正하나, 偏頗의이나, 中立的의이나, 煽情的의이나의 與否와 또 言論의 過剩時代라고 할 수 있는 5·16前 1年과 言論의 萎縮時代라고 할 수 있는 5·16後 1年을 比較하므로서 그 差異와 傾向이 如何한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 本調査의 目的이다.

二. 假 說

韓國新聞은 例外 없이 新聞倫理實踐要綱이나 社是에 嚴正中立 및 客觀報道를 標榜하고 있지만 韓國的 與件下에서는 그 實踐要綱이나 社是가 絕對적으로 遵守되고 있다는 印象을 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韓國을 物心兩面에서 支援하고 있고 美國을 爲始한 友邦國家에서 派遣된 軍人이고 보면 이를 取扱하는 新聞의 態度에 對하여도 여러가지 臆測과 偏見을 자아낼만한 對象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역측과 偏見 等 諸點을 밝히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 1) 新聞은 公正함을 社是로 함으로 公正하게 記事를 다룰 것이다.
- 2) UN軍은 韓國防衛를 目的으로 駐屯하고 있는 「恩人」의 存在이기 때문에 韓美親善의 立場에서 善行에 關한 記事 및 論說을 많이 報道할 것이다.
- 3) 相對方이 UN軍이고, 또 불상사가 特殊한 情況 밑에서 발생하므로 記事나 論調가 煽情的으로 取扱될 傾向이 많을 것이다.
- 4) 新聞의 性格에 따라서 取扱態度가 다를 것이다.
- 5) 時代的으로 記事取扱態度에 差異를 나타낼 것이다.

三. 調査方法

a. UN軍의 限界

여기서 UN軍이라 함은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友邦國에서 派遣된 外國軍人으로서 國籍에 不問하고 公務이거나 私務이거나 一切의 行爲를 하는 軍人을 말한다. 따라서 主한 UN軍人인 限 그 行爲가 韓國과의 關係가 直接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調査하였다.

그 家族에 關하여는 그 家族의 一舉一動이 單純한 個人으로서가 아닌 UN軍의 名義나 그 內容이 그것으로 看做될 때에는 이도 調査對象에 包含시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 1) 駐韓 UN軍이 休暇 및 休養次 한국을 떠나 日本 및 其他 地域에 여행 및 요양 중일때 同軍人의 行爲가 韓國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경우이다.
- 2) 駐韓 UN軍이 UN軍의 資格을 면하고 外國國 軍人으로서 본국으로 귀대하여 轉屬, 轉役 및 除隊한 후에 行爲이다. 그러나 그 行爲가 主한 UN軍으로 在籍되어 있을 時의 行爲로 因하여 轉屬, 轉役 및 除隊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한국 및 韓人과의 關係가 있을 때에는 此限에 不在로 하였다. (例컨데 「마호니」 일등병과 운전리에 「宋仁子」 양과의 경우)

3) 駐韓 UN軍 對 北傀 및 朝鮮을 비롯한 共產陣營과의 軍事的 및 기타 一切기사는 本調査對象에 넣지도 않았다.

4) 駐韓 UN軍이 아닌 기타 국가의 軍인이거나 저명인사가 訪韓하여 UN軍部隊를 방문했을 때 그것이 單純한 人事次 방문은 除外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UN軍의 作戰上 및 士氣문제와 關連하여 二段以上の 기사로 取扱되었을 때에는 此限의 不在로 하였다. 그리고 카츄샤나 UN軍 軍屬은 UN軍의 名義거나 名義로 그 內容이 看做될 때에는 取扱하였다.

b. 調査對象

調査의 信憑性을 높이기 爲하여는 國內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을 總망라 하여 조사하여야 했을것인데 制限된 人力과 時間的 制約때문에 서울에서 發刊되는 京鄉新聞, 東亞日報, 서울신문, 朝鮮日報, 한국일보 등 五大新聞을 選定하였다.

期間은 4·19 의거가 발생한 1960년 5월부터 5·16 革命이 난 1961년을 거쳐 1962년 4월 까지 조사하였다.

換言하면 年數로는 1960年, 1961年, 1962年 등 3년에 걸쳐 조사한 셈이 된다.

그런데 서울신문 만은 4·19로 말미암아 休刊되었다. 1960년 7월 27일에 복간되고, 1961년 5월 10일부터 1961년 12월 20일까지 또다시 休刊되었다가 1961년 12월 21일에야 復刊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음을 기술해 둔다.

c. 調査事項

- 1) 五大新聞의 1, 2, 3, 4面을 全部 調査했으며 單刊制가 된 以後부터는 8面을 調査했다.
- 2) 記事로서는 報道記事, 解說記事, 社說, 短評, sports 記事, 記名論說, 讀者投稿, 寫眞 등을 調査하였다.
- 3) 記事件數의 頻度를 測定했으며 記事量의 單位로는 「column inch」를 사용했다.

d. 判斷의 基準

新聞기사가 涵축하고 있는 內容을 完全히 파악하여 設定된 category에 맞도록 分析하여

기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는 判斷의 기준이나 보는 角度를 달리 함으로서 조사결과가 相異하기 때문이다.

判斷의 기준을 嚴格히 함으로서만이 調査者의 主觀을 最大限度로 排除할수 있는데 本調査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전력을 傾注하였다.

그런데 어떤 行爲가 發生했을 때 그 行爲를 한 主體와 그 行爲로 因하여 有形無形의 效果를 받게 되는 客體가 있게 된다.

本調査에서도 그런 문제가 提起되었는데 UN軍을 對象으로 하는만큼, 行爲主體를 UN軍, 行爲客體를 韓國과 韓人으로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 그 判斷이 어렵고 曖昧한 기사도 있었다. 여기서는 편의상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문제 될만한 점만 밝히려 한다.

1) 記事分類

△ 善行記事

記事標題나 內容이 主觀的 意識의으로 讚辭, 友好的인 態度 원조, 성원 등의 物質的 精神的으로 현저히 鼓舞的인 表現을 한 것이며 기사에 따라 區別키 곤란한 것은 一괄하여 支持하거나 호응하는 등 價值賦與의인 內容을 갖인 記事.

△ 惡行記事

記事標題나 內容이 主觀的, 意識的으로 人間尊嚴性을 無視하거나 輕視하여 價值否定的이며 이를 분간키 곤란한 것은 價值剝奪的이라고 看做되는 記事.

△ 中立記事

標題나 內容이 事實보도에 그치고 價值賦與나 剝奪的이라고 客觀的으로 看做되지 못하는 記事.

2) 記事源 確認態度

△ 雙方確認

하나의 事件이 發生했을시 行爲主體와 客體에게 그 眞相與否를 確認했거나 時間的 空間的으로 양주체가 同一 時所에 있거나 있다고 看做될만한 상당한 根據나 證人이 있을 때에를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 一方確認

記事의 內容이 行爲와 事件의 主體, 客體中 一方만의 行爲와 言辭를 확인했거나 引用報

道하고 周圍사정으로 보아 雙方確認이라고 看做키 곤란한 記事.

△ 形式上確認

行爲와 事件의 結果만이 보도되었을 뿐 그 주체와 客體를 확인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기사內容과 傳聞報道로서 結果가 확실하지만 그것을 확인했는지의 여부가 不明인 記事.

△ 未確認

확인여부가 不明이고 標題나 記事內容自體가 事實보도라고는 推定키 곤란하고 傳聞報道나 引用報道에 있어서 事實과는 어긋나는 기사 內容

3) 記事評價

△ 公正

記事分類, 記事確認態度, 記事取扱態度로 보아 어느 一方에 價值賦與의이거나 價值剝奪的의이 아니며 偏頗的이거나 煽情的인것도 아니라고 評價되는 記事.

△ 偏頗

記事의 確認이 雙方的이라 볼 수 없고 어느 一方만을 偏重하여 報道하고 그 取扱態度로 보아 主觀性이 多分히 있고 客觀性이 缺如된 記事.

△ 煽情

事實의 周圍사정으로 보아 眞僞 與否를 確認했다고는 볼 수 없는 記事를 大的으로 보도하거나 別로 重要치도 않은 기사를 過大評價하여 大書特筆하며 大衆의 好奇心을 刺戟하려는 記事.

4) 標題評價

△ 公正한 標題

標題가 記事量에 均衡되고 그 內容에도 適切하다고 看做되는 것.

△ 煽情的 標題

標題가 記事量에 均衡을 잃고 그 內容과 較量하여 過大評價되고 大書特筆된 標題.

이상에서 문제될만한 기준을 定義했지만 모든 기사가 이 범주(範疇)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기사內容이 복잡하여 이 範疇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其他欄에 넣었다.

그러나 여기서 밝히려는 것은 設定된 세목

별로 그 動態와 傾向이므로 기타란은 편의상 省略하였다.

따라서 集計한 계수상에 差異가 있는 것은 이런 緣由임을 기술해 둔다.

四. 調査分析의 概說

叙上한 方法에 依하여 調査한 重要한 結果를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韓國新聞의 概觀

다음은 五大新聞에 掲載된 UN軍에 關한 記事를 調査分析하여 民政(Civil Government)과 軍政(Military Government)으로 區分하고 그 增加率과 分布率 및 總計를 나타낸 表이다.

(註, 以下 CG=Civil Government, 1960年 5月→1961年 4月)

MG=Military Government 로 편의상 表示했음(1961年 5月→1962年 4月)

a. 面數

第1表가 보이고 있듯이 面數增加率은 5·16 前에 比하여 대체로 增加一路에 있다,

一面을 政治面이라고 하면 5·16 후에는 54.5%의 增加率을 보여 신문이 UN軍에 關

하여 점차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面數로는 三면記事가 壓倒的이지만, 그 增加率은 22.9%로서 4면중 3位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여기서 현저하게 눈에 띄이는 것은 二面記事인데 그것은 5·16전에 比하여 70.6%나 增加하여 가장 높은 率을 보이고 있다. 二面을 經濟面이라고 하면 5·16후 經濟문제에 關한 관심이 一躍 上昇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面數로는 四면중 제 3位에 머물러 있다.

反面에 四面은 5·16前에 比하여 面數모든 一 下位에 있고 分布率도 53.6%나 減少하고 있다.

分布率에서 보면 三面, 四面이 떨어지는 外에는 增加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一面이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다.

5·16前後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보면亦是 三面이 57.6%를 차지하여 首位를 點하고 四面이 6.6%로서 제일 뒤지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UN軍에 關한 記事는 三面에다 많이 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 時代別 및 總(新聞) 面數

[] ()는 %

區分	時代	1	2	3	4	計	備 考
增減率	CG	112(100)	28(100)	317(100)	56(100)	512(100)	[]는 增減
	MG	246(154.5) [54.5]	71(170.6) [70.6]	411(122.9) [22.9]	26(46.4) [-53.6]	754(132.1) [32.1]	
分布率	CG	21.8	5.4	61.9	10.9	512(100)	[] "
	MG	32.7[10.9]	9.4[4.0]	54.5[-7.4]	3.4[-7.5]	754[100]	
計		358 (28.3)	99 (7.5)	728 (57.6)	82 (6.6)	1266 (100)	

(表 2) 時代別 및 總(新聞)取扱態度

[] ()는 %

區分	時代	上	中	下	計	備 考
增減率	CG	134(100)	184(100)	181(100)	499(100)	[]는 增減
	MG	214(175.1) [75.1]	224(117.9) [17.9]	223(118.9) [18.9]	661(132.1) [32.1]	
分布率	CG	26.9	36.9	36.2	499(100)	[]는 "
	MG	32.2[5.3]	34.0[-2.9]	33.8[2.4]	661[100]	
計		348 (30)	408 (35.2)	404 (34.8)	1160 (100)	

b. 取扱態度

表2는 UN軍에 관한 記事를 紙面의 上, 中, 下 中 어디에다 실리고 있는지 그 位置를 보인 것이다.

記事의 取扱은 혁명전에 비하여 增加하고 있지만 혁명후에는 上, 中, 下, 면에 大差가 없다.

그러나 그 增加率은 上面記事가 75.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中面記事가 제일 뒤지고 있다. 또한 分布率 역시 中面記事가 혁명전에 비하여 2.9%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外에는 근소한 차로 증가하고 있다.

혁명전후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면 中面記事는 增加率이나 分布率은 뒤지지만 25.2%나 전체에서 占하여 首位에 있다.

대체로 上에서 보이고 있듯이 UN軍에

관한 記事는 中面에 많이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段數

新聞記事가 增加함에 따라 그 段數의 量도 增加一路에 있다.

그중에서도 表3이 보이고 있듯이 5段, 6段의 Top記事가 顯著히 增加하고 있다. 分布面에서 볼 때에는 一段記事가 11.6%나 減少하는 外에는 大體로 僅小하게 增加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4段記事가 가장 높고 다음이 3段記事이다.

혁명前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1段記事가 首位이며 段數가 점점 尙수록 전체에서 占하는 비율은 적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3) 時代別 및 總 段數

[] ()는 %

區分	時代	面						計	備 考
		1	2	3	4	5	6		
增減率	CG	240(100)	110(100)	101(100)	64(100)	10(100)	5(100)	530(100)	[]는 增減
	MG	240(100)	166(133.7) [33.7]	172(140.7) [40.7]	86(123.6) [23.6]	30(166.7) [66.7]	12(158.4) [58.4]	706(125) [25]	
分布率	CG	45.3	20.8	19.1	12.1	1.8	0.9	530(100)	[] "
	MG	33.7[-11.6]	23.4[2.6]	24.2[5.1]	12.1[100]	5.0[3.2]	1.6[0.7]	706[100]	
計		480 (38.8)	276 (22.3)	273 (22.0)	150 (12.1)	40 (3.5)	17 (1.3)	1236 (100)	

(表 4) 時代別 및 總記事確認態度

[] ()는 %

區分	時代	確 認				計	備 考
		雙 方	一 方	形 式	未		
增減率	CG	138(100)	85(100)	204(100)	64(100)	491(100)	[]는 增減
	MG	268(149.3) [49.3]	42(48.4) [-51.6]	248(117.2) [17.7]	15(23.4) [-76.6]	573(114.3) [14.3]	
分布率	CG	28.1	17.3	41.6	14.0	491(100)	[] "
	MG	46.6[18.5]	7.3[-10.0]	43.3[1.7]	2.8[-11.2]	573[100]	
計		406 (38.1)	127 (11.9)	452 (42.6)	79 (7.4)	1064 (100)	

d. 確認態度

新聞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과 公正을 期하여야 하는데 이에 是 確認與否가 문제된다. 그리하여 本조사에서도 그 결과와 傾向을 알고져 설정된 기준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表4가 表示하고 있다.

雙方確認은 5·16 혁명前에 비하여 49.3%

나 增加하여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이 形式的 確認인데 여기서 異彩로운 것은 一方的 確認과 未確認이 顯著하게 5·16 혁명전에 비하여 減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未確認이 76.6%를 보여 제일 減少率이 큰 것이다.

分布率 面에서도 雙方확인인 壓倒적으로 增

加하고 있다. 卽 18.5%의 增加率을 보여 수 위이고 다음이 形式的 確認으로서 1.7%의 근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혁명전후를 통하여 보아도 雙方확인인 形式的 확인에는 뒤지지만 높은 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未確認이 가장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현상은 5·16 후 한국신문의 질적向上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언론계를 위해서도 경하여야 할 일이다.

e. 記事分類

表 5를 보면 惡行記事가 減少하는 外에는 善行記事, 中立記事는 增加一路에 있음을 엿

(表 5) 時代別 및 總 記事分類

區分		時代	善	惡	中	計	備 考
增減率	CG		310(100)	137(100)	76(100)	523(100)	[]는 增減
	MG		430(128) [28]	106(78) [-22]	[122.3] 98(22.3)	[117.5] 637(17.5)	
分布率	CG		59.2	26.2	14.6	523(100)	[] "
	MG		67.8[8.6]	16.6[-9.6]	15.6[1.0]	637[100]	
計			740 (66.8)	243 (21)	174 (14.1)	1157 (100)	

(表 6) 時代別 및 總 寫眞 [] ()는 %

區分	時代	CG	MG	計	備 考
增減率		69(100)	163(158.3) [58.3]	232	[]는 增減
分布率		25.4	74.6 [49.2]	232(100)	[] "

(表 7) 時代 및 總 社說 [] ()는 %

區分	時代	CG	MG	計	備 考
增減率		16(100)	15(93.7) [-6.3]	31	[]는 增減
分布率		51.7	48.3 [-3.4]	31(100)	[] "

나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그 分布率도 49.2%의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체건수에 74.6%를 차지하고 있어 혁명전에 비하면 近 3倍되는 比率이다.

이처럼 혁명후로는 사진기사가 현저하게 增加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表 6 參照)

볼 수 있다. 卽 善行記事는 5·16 혁명전에 비하여 28%나 增加하여 제일 높은 率을 보이고 다음이 中立記事 순으로 되어 있다.

分佈면에서도 역시 8.6%나 增加하여 善行기사가 首位지만 特記할 것은 惡行기사가 9.6%나 감소하여 善行기사가 增加한 絶對值 8.6%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다. 5·16 혁명전후를 통하여 종합해서 보면 善行기사가 66.8%로서 단연 우세한 率을 보이고 있다. 惡行記事 역시 增加率이나 分佈率은 減少되었지만 전체 分佈率은 中立기사보다 높은 것이 特異하다.

f. 寫眞

寫眞건수로는 5·16 혁명전에 비하여 58.3%

[] ()는 %

g. 社說

혁명後로는 新聞의 事實 수가 감소하고 있다. 卽 社說數는 5·16 전에 비하여 6.3%가 감소하였고 그 분포율도 5·16 전에 비하여 3.4%가 減少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5·16 혁명以後로는 新聞의 論調가 低調하였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表 7 參照)

h. 記事量

記事量 역시 5·16 혁명전에 비하여 增加하고 있다. 卽 增加率로는 5·16 혁명전에 비하여 51.3%를 보이고 分佈率로는 34.6%나 增加하고 있다. (表 9 參照)

i. 記事評價

公正한 기사가 5·16 전에 비하여 37.2%나 增加하고 있는 外에는 煽情, 偏頗等의 기사는 5·16 혁명 전에 비하여 減少경향을 보이고 있다.

分布率로 볼 때에도 公正한 記事는 5·16 혁명전에 比하여 11.8%나 增加하고 있는데 反하여 그외 것은 減少하고 있다.

革命前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에도 역시 公正한 記事가 壓倒的으로 우세하고 偏頗, 煽情의 順으로 되어 있다.

以上에서 볼 때 公正한 記事가 主이고 其他 것은 미소하지만 그래도 편파적인 記事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것은 경계할 事이다.

j. 標題評價

新聞의 記事와 內容이 標題에 적절하고 또 均형되게 標題를 붙여야 할 事인데 한국신문

(表 8) 時代別 및 總 記事價評

[] ()는 %

區分	時代	公 正	煽 情	偏 頗	計	備 考
增減率	C G	377(100)	43(100)	90(100)	510(100)	[]는 增減
	M G	610(137.2) [37.2]	39(91.8) [-9.2]	62(93.2) [-6.8]	711(128.3) [28.3]	
分布率	C G	73.9	8.0	18.1	510(100)	[] "
	M G	85.7[11.8]	5.4[-2.6]	8.9[-9.2]	711[100]	
計		987 (8.08)	82 (6.5)	152 (12.7)	1221 (100)	

(表 9) 時代別 및 總 記事量

[] ()는 %

單位: col. inch

區分	時代	CG	MG	計	備 考
增減率		5281.2 (100)	10838.8 (151.3) [51.3]	16120.0	[]는 增減
分布率		32.7	67.3 [34.6]	"(100)	[] "

比하여 21%밖에 不되지만 煽情의인 표제에 增加率은 5·16 혁명전에 比하여 54%나 차지하여 2.5배나 되는 差를 보이고 있다.

分布率에서 볼 때에도 역시 公正한 標題가 壓倒的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선정적인 事는 5·16 혁명전에 比하여 4.7%나 增加하고 있는데 反하여 公正한 標題는 5.5%나 감소하고 있다.

(表 10) 時代別 및 總 標題價評 [] ()는 %

區分	時代	分 正	煽 情	計	備考
增減率	C G	457(100)	63(100)	520(100)	[] 增減
	M G	601(121) [21]	112(154) [54]	713(127.1) [27.1]	
分布率	C G	89.9	10.1	520(100)	[] "
	M G	84.3[-5.6]	15.7[4.7]	713[100]	
計		1058 (93.3)	175 (6.7)	1233 (100)	

이런 현상은 5·16 후 파주等地에서 民차사 進 및 빈번히 發生되는 불상사 등을 계기로 일부 學生의 Demo를 爲시하여 신문도 감정적으로 sensational하게 다루고 有음을 掩치 不할 事이다.

2) 5·16 革命以前 1年과 그以後 1年의 新聞別 增減率

다음은 本 調査의 category에 따라 調査한 結果를 5·16 以前과 以後로 區分하고 그 以前에 比하여 얼마나 增減하고 有는지 그 增減率을 보인 表인데 參考로 發表한다.

은 標題가 어떠한지 그 경향은 어떠한지 表 10이 나타내고 있다.

公正하다고 인정되는 標題가 많기는 하나 그 增加率은 煽情의인 事에 未洽하고 有음을 注意할 事이다.

卽 公正한 標題는 增加率이 5·16 혁명전에

※註 以下에서 CG를 100%로 보고 MG의 percentage를 낸것이다. (-)의 數値는 CG 100%에서 減한 數値이다. 例컨대(-23)라면 100-77에서 나온數目

記事 面 數 CG=100%, MG()=100+()%

新聞 時代	1		2		3		4		計	備 考
	CG	MG	CG	MG	CG	MG	CG	MG		
京 鄉	CG	32	14	96	11	153				
	MG	55(41.9)	17(17.7)	74(-23)	6(-44.5)	152				
東 亞	CG	10	3	75	8	96				
	MG	78(87)	15(80)	144(48)	12(33.4)	246				
서 울	CG	23	6	41	15	85	6個月 休刊			
	MG	19(-17.5)	—	39(-4.9)	3(-80)	61	(1961.6~12)			
朝 鮮	CG	33	2	39	21	95				
	MG	51(35.3)	22(91.9)	79(50.7)	4(-82.0)	156				
韓 國	CG	14	3	67	1	85				
	MG	43(67.5)	17(82.1)	75(10.9)	1(100)	136				

記事 量

CG=100%, MG()=100+()%
單位 ; col. inch

新聞 時代	CG	MG	計	備 考
	京 鄉	1415.7	3378.3 (58.1)	
東 亞	1114.3	3798.5 (70.8)	4912.8	
서 울	9810.0	391.1 (-60.2)	1372.1	6個月 休刊 (1961.6~12)
조 선	806.1	1536.1 (48.1)	2742.2	
韓 國	964.7	1334.8 (27.7)	2298.9	

取 扱 態 度

CG=100%, MG()=100+()%

新聞 時代	態 度	上 中 下			計	備 考
		上	中	下		
京 鄉	CG	44	58	51	153	
	MG	54(19.5)	58(100)	47(-79)	170	
東 亞	CG	28	29	42	99	
	MG	54(49.2)	58(50)	47(10.7)	159	
서 울	CG	19	31	23	73	6個月 休刊
	MG	19(100)	15 (-51.7)	25(-8)	59	(1961.6~12)
朝 鮮	CG	21	38	34	93	
	MG	45(52.3)	56(22.1)	37(8.1)	138	
韓 國	CG	22	28	31	81	
	MG	42(47.7)	37(24.4)	56(44.7)	135	

標 題 段 數 CG=100%, MG()=100+()%

新聞 時代	1 2 3 4 5 6							計	備 考
	CG	MG	CG	MG	CG	MG	CG		
京 鄉	CG	72	30	37	18	2	1	160	
	MG	52(-27.8)	33(9.1)	40(7.5)	20(10)	4(50)	3(66.7)	152	
東 亞	CG	37	28	21	8	5	—	99	
	MG	95(61.1)	40(30)	45(53.4)	24(66.7)	10(50)	2	216	
서 울	CG	42	21	18	6	1	—	88	6個月 休刊
	MC	18(-57.2)	15(-28.6)	19(5.4)	6(100)	3(66.7)	—	61	(1961.6~12)
朝 鮮	CG	52	16	12	12	1	1	94	
	MG	31(-42.4)	38(57.9)	32(62.5)	26(53.9)	6(83.4)	4(75)	136	
韓 國	CG	37	15	13	11	1	3	80	
	MG	44(16)	40(62.5)	31(58.1)	10(-0.1)	7(85.8)	3(100)	135	

記事 確認 態度 CG=100%, MG()=100+()%

新聞	時代	確認		形式	未	計	備考
		雙	方				
京 鄉	CG	52	10	73	3	138(100)	
	MG	54(3.7)	6(-40)	71(-2.9)	2(-33.7)	133	
東 亞	CG	13	11	38	24	86(100)	
	MG	54(76)	10(-1)	71(46.5)	2(-16.7)	137	
서 울	CG	26	30	17	15	88(100)	6個月 休刊
	MG	25(-38)	10(-70)	22(18.2)	2(-86.7)	59	(1961~6~12)
朝 鮮	CG	19	13	56	12	100(100)	
	MG	36(47.3)	5(-61.6)	70(20)	4(-66.6)	115	
韓 國	CG	28	21	20	10	89(100)	
	MG	99(70.9)	11(-52.9)	14(-30)	5(-50)	129	

記事 分類 CG=100%, MG()=100+()%

新聞	時代	分類			計	備考
		善	惡	中		
京 鄉	CG	109	27	19	155	
	MC	95(-13)	26(-3.7)	26(26.2)	149	
東 亞	CG	47	43	8	98	
	MG	97(51.6)	26(-37.6)	26(69.1)	149	
서 울	CG	58	16	17	91	6個月 休刊
	MG	36(-38)	10(-37.5)	15(-11.8)	61	(1961. 5-12)
朝 鮮	CG	56	23	15	94	
	MG	99(52.6)	19(-11.4)	25(40)	143	
韓 國	CG	40	28	6	74	
	MG	103(61.2)	25(-10.7)	17(64.7)	145	

寫 眞

CG=100%, MG()=100+()%

新聞	時代	CG	MG	計	備考
京 鄉		18	40 (55)	58	
東 亞		15	55 (72.7)	70	
서 울		15	8 (-46.7)	23	6個月 休刊 (961. 6~12)
朝 鮮		14	22 (36.4)	36	
韓 國		7	38 (81.6)	45	

社 說

CG=100%, MG()=100+()%

新聞	時代	CG	MG	計	備考
京 鄉		3	5 (40)	8	
東 亞		2	1 (-50)	3	
서 울		3	2 (-33.4)	5	6個月 休刊 (1961.6~12)
朝 鮮		2	3 (33.4)	5	
韓 國		6	4 (-33.4)	10	

記事 評價

CG=100%, MG()=100+()%

新聞時代	評價		公 正	煽 情	偏 頗	計
	CG	MG				
京 鄉	CG	137	2	10		149
	MG	150(8.7)	10(80)	3(-70)		163
東 亞	CG	78	5	16		99
	MG	188(58.6)	15(66.7)	10(-37.5)		213
서 울	CG	38	12	35		85
	MG	43(11.2)	3(-75)	14(-60)		60
朝 鮮	CG	77	10	8		95
	MG	114(33.3)	4(-60)	22(63.7)		140
韓 國	CG	47	14	21		82
	MG	115(59.2)	7(-50)	13(-38.1)		135

標題 評價

CG=100%, MG()=100+()%

新聞時代	評價		公 正	煽 情	計	備 考
	CG	MG				
京 鄉	CG	115	30		145	
	MG	119(3.4)	38(11.1)		157	
東 亞	CG	88	13		101	
	MG	177(50.3)	46(71.8)		221	
서 울	CG	81	8		89	6個月 休刊(1961.6~12)
	MG	56(-30.9)	5(-37.5)		61	
朝 鮮	CG	94	3		97	
	MG	130(27.8)	11(72.6)		141	
韓 國	CG	75	9		34	
	MG	123(39.1)	12(25.0)		135	

3) 各 新聞別 比較

다음은 각 신문別로 革命前 1年과 後 1年을 통하여 2年間을 總集計한 것으로서 각신문

간에 比較가 될것이다. 以下 參考삼아 發表하면 다음과같다.

記 事 面 數

()는 %

新聞	面	面 數				計	備 考
		1	2	3	4		
京 鄉		87 (28.5)	31 (10.1)	170 (55.4)	17 (6.0)	305 (100)	
東 亞		88 (25.5)	18 (5.3)	219 (63.4)	20 (5.8)	345 (100)	
서 울		42 (28.7)	6 (4.3)	80 (54.7)	18 (12.3)	146 (100)	6個月 休刊(1961.6~12)
朝 鮮		84 (33.3)	24 (9.5)	118 (47.0)	25 (10.2)	251 (100)	
韓 國		57 (26.8)	20 (9.0)	142 (64.2)	2 (0.9)	225 (100)	
平 均 值		72	20	146	16	252	

取 扱 態 度

()는 %

新聞	態度	態 度			計	備 考
		上	中	下		
京 鄉		98 (30.3)	116 (39.4)	98 (30.3)	323 (100)	
東 亞		82 (31.9)	87 (33.9)	89 (34.2)	258 (100)	
서 울		38 (28.9)	46 (34.8)	48 (36.3)	132 (100)	6個月 休刊(1961.6~12)
朝 鮮		66 (28.5)	94 (40.7)	71 (30.8)	231 (100)	
韓 國		64 (29.6)	65 (20.0)	87 (40.4)	216 (100)	
平 均 值		69	81	80	232	

標 題 段 數 ()는 %

新聞	段	1	2	3	4	5	6	計	備 考
京 鄉		134 (41.6)	63 (19.5)	77 (23.9)	38 (11.8)	6 (1.8)	4 (1.4)	322 (100)	
東 亞		132 (41.9)	68 (21.5)	66 (20.9)	32 (10.1)	15 (4.1)	2 (1.5)	315 (100)	
서 울		60 (40.2)	36 (24.6)	37 (25.5)	12 (8.0)	4 (2.7)	—	149 (〃)	6個月 休刊 (1961. 6~12)
朝 鮮		83 (35.4)	54 (23.4)	44 (19.0)	38 (16.4)	7 (3.3)	5 (1.5)	231 (〃)	
韓 國		81 (37.6)	55 (25.5)	44 (20.4)	21 (9.7)	8 (3.7)	6 (3.1)	215 (〃)	
平 均 值		96	55	55	30	8	5	247	

確 認 態 度 ()는 %

新聞	確 認	雙 方	一 方	形 式	未	計	備 考
京 鄉		106 (39.1)	16 (5.8)	644 (53.5)	5 (1.6)	271 (100)	
東 亞		67 (30.0)	21 (9.4)	109 (48.8)	26 (11.8)	223 (〃)	
서 울		51 (34.8)	40 (27.0)	39 (26.5)	17 (11.7)	147 (〃)	6個月 休刊 (1961. 6-12)
朝 鮮		55 (25.5)	18 (8.3)	126 (58.6)	16 (7.6)	215 (〃)	
韓 國		107 (56.9)	32 (17.0)	34 (18.1)	15 (8.0)	188 (〃)	
平 均 值		81	21	90	16	123	

記 事 分 類 ()는 %

新聞	分 類	善	惡	中	計	備 考
京 鄉		204 (67.5)	53 (17.5)	45 (14.9)	302 (100)	
東 亞		144 (54.0)	69 (27.9)	34 (13.8)	247 (100)	
서 울		94 (61.8)	26 (17.1)	32 (21.0)	152 (100)	6個月 休刊 (1961. 6~12)
朝 鮮		155 (65.4)	42 (18.1)	40 (12.6)	237 (100)	
韓 國		143 (65.2)	53 (24.4)	23 (10.5)	219 (100)	
平 均 值		15	48	35	231	

記 事 評 價 ()는 %

新聞	評 價	公 正	煽 情	偏 頗	計	備 考
京 鄉		287 (92.2)	12 (3.8)	13 (4.2)	311 (100)	
東 亞		266 (86.2)	20 (6.4)	26 (8.4)	312 (〃)	
서 울		81 (55.9)	15 (10.3)	49 (33.9)	145 (〃)	6個月 休刊 (1961. 6~12)
朝 鮮		191 (81.2)	14 (5.9)	30 (12.7)	235 (〃)	
韓 國		162 (74.6)	21 (9.7)	34 (11.0)	217 (〃)	
平 均 值		197	16	30	244	

標題 評價 ()는 %

新聞	評價	公正	煽情	計	備考
京 鄉		234 (76.9)	68 (22.5)	302 (100)	
東 亞		265 (82.3)	59 (18.3)	322 (<i>''</i>)	
서 울		137 (91.3)	13 (8.6)	150 (<i>''</i>)	6個月 休刊 (1961.6~12)
朝 鮮		224 (94.1)	14 (5.9)	238 (<i>''</i>)	
韓 國		298 (93.4)	21 (6.6)	319 (<i>''</i>)	
平均 值		212	35	246	

社說, 寫眞, 記事量 ()는 %

新聞	項目	社說	寫眞	記事量	備考
京 鄉		8 (25.8)	58 (24.9)	4794.0 (29.6)	
東 亞		3 (9.8)	70 (30.1)	4912.8 (30.4)	
서 울		5 (16.1)	23 (9.9)	1372.1 (8.5)	6個月 休刊 (1961.6~12)
朝 鮮		5 (16.1)	36 (15.5)	2742.2 (17.5)	
韓 國		10 (32.2)	45 (19.6)	2298.9 (14.5)	
計		31 (100)	232 (100)	16120.0 (col. inch) (100)	
平均 值		6	46	3224	

五. 結 語

以上에서 概略的이나마 韓國新聞이 UN軍에 關한 記事를 如何히 取扱하고 있는지 그 態度를 檢討하였다.

韓國新聞은 記事評價(表 8)計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公正한 記事가 煽情(82件), 偏頗(152件) 등을 合한 總件數 1221件(100%) 가운데서 987件(80.8%)을 占하고 있고 標題評價(表 10)計에서 보면 公正은 (1058件), 煽情(175件)을 合한 總計 1233件(100%)中에서 93.3

% 차지 하고 있어 大體로 公正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記事를 公正하게 取扱할 것이다」라는 假設 ①의 妥當性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反면에 記事分類(表 5)計에서 보면 善行기사(740件), 惡行記事(243件), 中立의인 記事(174件)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總件數 1157件(100%)中에서 惡行기사와 中立의인 記事가 21%, 14%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행기사를 많이 掲載할 것이다」라는 假說 ②는 그 妥當性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記事評價(表 8)計에서는 煽情的이라고 評價되는 記事가 記事評價 總計(1221件)에서 6.5%(82件)와 表 10의 計에서 보이고 있듯이 煽情(175件)的인 標題가 公正(1058件)한것을 合한 全體(1233件)에서 6.7%를 나타내고 있으니 記事나 論調를 煽情的으로 取扱할 것이다」라는 假說 ③은 크게 認定을 받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역시 警戒할 일이다.

「新聞에 따라 取扱態度를 달리한 것이다」라는 가설 ④는 一部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들의 傾向이 全的으로 다르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一律的인 傾向이 결여되었고 「時代的으로 取扱태도에 差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가설 ⑤는 그 時代的差異가 顯著한 category가 있으므로 그 妥當性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諸假說의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보았는데 大體로 한국 신문은 UN軍에 關한 記事를 取扱하는데 5·16 혁명 전에 비하여 公正하고 新聞自體가 自속자계하여 質的으로 向上一路에 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는 時代적 比較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即 表 8에서 볼 수 있듯이 公正한 記事의 增加率은 5·16 前에 있어서 公正한 記事가 377件이었는데 5·16 후에는 610件으로서 37.2%의 增加率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5·16 전의 전체(510件) 件數에서 보면 그 占하는 分布率도 73.9% 였던 것이 5·16 후에는 그 전체(711件)에 85.7%로서 11.8%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點에서 5·16 혁명후에는 재래의 樣相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돌입한 點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획기적으로 次元을 달리한다고는 볼 수 없다.